

도박 등 일련의 사태

목숨을 들어 참회합니다!

이제 그만 채찍을 내려 놓고 희망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한국불교, 희망이 되겠습니다!

불기2556(2012)년 6월 13일

불교계부터 출발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 사회지도층과 공직자의 도덕성 상실, 권력에 의한 차별현상, 생명경시, 물질만능주의로 빚어지는 온갖 행태의 사회병리현상을 '개혁과 정화' 라는 처방으로 치유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55 종로1번가 1212호

목 차

서문 - 목숨을 들어 참회합니다	3
참회의 글 - 어리석게 탐욕의 세계로 들어갔음을 참회합니다!	4
언론의 지적을 그 어떠한 경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5
국민과 불자여러분께 드리는 글	7
실컷 맞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9
향후 조계종이 나아갈 바와 그 희망	10
고치고 다듬으며, 다시 발라서 새것으로	11
보왕삼매론	12
불교문화 그 위대성	13
우리 민족사의 대 스승들	14
한국사회, 우리 모두 탐욕을 버리자...	15
한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개혁해야	16
현대를 사는 멋진 스님들	17
영원한 스승이시여!	33
총무원장스님 소록도 방문 등	34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는 우리의 지친 심신을 치유합니다	36
참회문	37
불교는 희망이며 스님들은 등불입니다	47

조계종을 향한
비판과 지적은 매웠습니다.
그리고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숨을 들어 참회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분들에게 목숨을 들어 참회합니다.

하나가 여럿이며 여럿이 하나일진데, 한 승려의 잘못은 모든 승려의 잘못입니다. 변명도, 미진(微塵)만큼의 합리화도 구차합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근래 조계종 승려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잘못과 허물은 수행자의 신분을 망각한 가장 큰 죄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본디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를 절단(絶斷)하는 것으로서의 가르침입니다. 하여, 승려는 금강석 같은 힘으로 탐욕을 절단하고 사자와 같은 용맹으로 생사(生死)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나아가 승려는 자아(自我)라는 존재 개념 자체마저도 절단하고 지혜를 완성하여 존경받아 마땅한 위의를 갖춘 후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인도해야 할 구세대비(救世大悲)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려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엄격해야 함을 망각하고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승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숨을 들어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며, 한국불교 전체를 외면하지 말아주기를 간청합니다.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는 법이니, 이제 한국불교는 더욱 단단해진 팔과 다리로 굳세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조계종과 승려들은 굽은 곳을 스스로 도려내고 푸른 연꽃을 새롭게 만개시켜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불교, 그 위대한 가르침은 분명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새벽을 깨우는 목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가꾸어서 법륜(法輪)이 힘차게 굴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있기에는 가슴이 뻐개지는 아픔입니다. 신성한 가르침마저 비아냥거리는 현실에 울분을 삼키고 삼키나 결국은 우리의 허물이기에 참회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제작했습니다.

참회진언 - 옴 살바뫼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法應 합장

참회의 글

승가의 고위직부터 진정어린 참회를...

어리석게 탐욕의 세계로 들어갔음을 참회합니다!



인생을 허비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탐욕과 교만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세상에 걱정을 끼친 죄업을 참회합니다!

수행과 성찰을 게을리 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어리석게 변명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자신을 속인 죄업을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한 죄업을 참회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걱정과 누를 끼친 죄업을 참회합니다!

늘 참회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지 않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조계종은 언론의 지적을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결의 방향을 조언한 모든 언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면
상 모두 소개하지 못함을 양지바랍니다.

〈서울신문〉 2012.05.11 (금)

[사설] 거액 포커판 벌인 스님은 도대체 뭔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8명이 거액 포커도박판을 벌인... 최악의 불교계 추문으로 기록될 만하
다. 이번 사건과... 지금 불교계에 필요한 건 그런 대중요법식 처방이... 그래도 많은 이들은
불교계의 자정능력을 믿는다....

〈한국일보〉 2012.05.11 (금)

[사설] 조계종 전면 개혁불사에 나서야

조계종단 고위 승려들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새 포커 도박판을 벌인 게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고불총림... 불교와 조계종의 회생을 위해 자승 총무원장은 언제든 산사(山寺)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로 일대 개혁불사에...

〈동아일보〉 2012.05.14 (월)

[사설] 조계종, 참회 정진의 모습 보이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시숫밥 먹을 자격이 없다. 제가 대신 참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자승... 조계종은 지난해 초 ‘자정과 쇄신을 위한 결사운동’을

〈아시아투데이〉 2012.05.16 (수)

[사설] 조계종, 공염불말고 환골탈태하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내에서 연일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나오고... 등불인 불교계마저
타락했다는 생각에 한숨과 함께 절망감이 밀려든다.... 이는 분명히 추상같은 불교의 계율을
위반한 것이다.

〈부산일보〉 2012.05.16 (수)

[사설] 막가는 불교계, 참회하고 청정계율 되찾아야

국내 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종진스님들의 관광호텔 음주·도박
사건 후속편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반대파 간에 추악한 폭로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
다. ‘승려 도박’을 고발한 성호 스님은...

〈조선일보〉 2012.05.16 (수)

[사설] 불교, '참된 가난' 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오늘날 우리 종교에서 가장 결핍된 것이 바로 이 '참된 가난' 이다. 돈·권력·명예가 '참된 가난' 을 밀어내고... 길을 잃으면 출발의 원점(原點)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자비와 사랑을...

〈국제신문〉 2012.05.16 (수)

[사설] 조계종단은 뼈를 깎는 참회로 자정 이뤄내야

그것도 조계종 총무원장 등 핵심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상황을... 만약 이 같은 내용들이 실명으로 폭로된다면 조계종은 결정타를 맞을... 조계종은 관련자 처벌이나 쇠신책 마련 이전에 까발릴 것은 모두 다...

〈중앙일보〉 2012.05.18 (금)

[사설] “스님은 수행만, 돈 관리는 신도가”

중앙신도회가 16일 입장을 밝힌 것처럼 '스님들은 수행에만 전념하고, 돈과 관련된 업무는 재가자인... 정부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단에 속하는 큰 절은 신도들의...

〈뉴데일리〉 2012.05.20 (일)

당권파들 왜 이래? 스님 도박 톰살롱 운동권..

[뉴데일리-류근일 기자] 5만 원짜리 도박판 벌린 종교단체 간부들 '성호 스님' 이란 인사가 조계종 '당권파' 의... 이념과 사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향신문〉 2012.05.21 (월)

[사설] 조계종 도박 파문, 미봉책으론 수습 안된다

불교 조계종 고위급 승려들의 도박 등 추문이 끝도... 인터뷰에서 조계종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승려들이... 호텔에서 조계종 고위직 승려들이 길게는 일주일... 이른 조계종 고위직 도박 폭로로 조계종은 종단 출범 이후...

〈한겨레〉 2012. 5. 27(일)

[사설] 부처님 오신 날과 조계종 쇠신의 서원

모습으로 조계종은 만신창이가 됐다. 불교계에... 조계종 안에서는 최근 참회, 책임, 쇠신 등의 목소리가... 자승 스님이 이끄는 조계종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계율을 무시하는 풍토의 일대 쇠신은 조계종이 당면한...

국민과 불자여러분께 드리는 글!

- 승가의 지도자부터 참회의 삼보일배를 올려야 합니다 -

국가든 종단이든 어려울 때 일수록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은 사람이 합니다. 종단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불자여러분!

불교가 이 땅에 도래한지 1천 7백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여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환란의 시기에는 국토를 지켰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찬란한 불교문화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정치적 억불정책, 일제강점기의 왜색불교 그리고 해방 후 물밀듯이 들어온 서구의 문명과 세상의 정치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지친 한국불교를 제대로 정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계종에 책임이 있으나, 앞서 언급함과 같이 외형적인 원인도 너무나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위를 알수없는 추문과 도박 등 일련의 사건은 전적으로 승가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개인과 조직을 스스로 추스르지 못한 원인이며, 우리의 일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생활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는 종정예하께서 사회언론사의 기자들 앞에서 “대신 참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6월 4일 종정예하께서는 하안거 결제법어 중에 “산승이 오늘 작금의 종단사태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하니, 모든 사부대중께서는 유념하여 달라” “작금의 종단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종정예하께서는 “사부대중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하였고, “모든 대중들은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여 불조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종정예하의 정책과 참회 앞에서 모든 승려는 석고대죄를 넘어 목숨을 들어 참회를 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불자여러분!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쇠잔시킬 수는 없으며, 그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위대한 가르침은 해탈과 대자유라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이며, 구세대비(救世大悲)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서양에 전파된 것은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교수는 서양에서의 역사적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미래의 그 영향에 대해 이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서양이 불교와의 만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더 큰 사회의 틀과 변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동서양 고대 사상의 만남은 현대에 정치 경제 위주의 역사보다 향후 더 큰 틀의 인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법보신문) ‘서양의 지성이 본 불교’ 2012.01.11)”라는 그의 예언자적 지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를 비롯한 수많은 석학들이 미래의 대안과 역사의 주체로 불교를 지목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불교, 우리 사회와 인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승려들은 과거시대의 질곡과 아픔 그리고 모든 허물을 털어버릴 것입니다. 조계종은 진정으로 종단을 정비하고 승려의 의식을 개혁해서 구성원 하나하나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며, 자연과 인성이 동시에 파괴되는 현 시대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과 기준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조계종은 그 청정성을 회복하여 세상의 등불이 되고 목탁이 될 것입니다.

- 참회의 삼보일배를 올립니다 -

실컷 맞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 이제는 그만 채찍을 내려놓고 희망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사회의 여론과 언론에 의해 불교계가 의타적으로 정화될 지경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5월 4일 불교계 언론의 단독보도 이후, 5월 한 달여 동안 조계종에 대한 질타 그리고 애정어린 방향제시의 뉴스가 1천 건 이상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실컷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마음도 느꼈습니다. 그 만큼 불교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실망을 넘어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한국불교 승가는 국민과 함께하며 감동을 주고 존경 받는 수행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조계종은 진정성 있는 개혁을...
대중은 큰 목소리로 개혁을 요구해야...



다시는 스스로와 세상을 해(害)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향후 조계종이 나갈 바와 그 희망

- 진정성 없는 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다 -

무엇보다 사태의 원인은 승려 개개인이 교육과 수행에 따르는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하지 못한 때문이며, 종단의 제도적인 틀이 뒷받침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제는 말로만의 개혁이 아닌, 미래를 지향하면서 종단의 위상을 우뚝서게 할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국가든 종단이든 어려울 때 일수록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은 사람이 합니다. 종단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쟁투가 막을 내리면서 금융자본과 자원 그리고 종교의 이기주의에 의해 세계질서가 다시 짜여지고 있습니다. 물질 앞에 정신이 무너지고, 최첨단 문명의 이기 앞에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한 삶을 사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조계종은 그 당당하고 현결찬 진리를 올바르게 펼 수 있는 틀, 곧 종단의 근본철학과 유기적 짜임새를 온전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에 자비의 정신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과 불자들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제안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1. 조계종은 모든 것을 사회와 국민과 불자에게로 회향을 한다는 유신의 자세로 모든 것을 정비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2. 자정의 노력이 없는 개혁은 필패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정화하는 진실한 참회와,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는 의식개혁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3. 국민과 사회에 친근감을 주고 세상과 함께하며 실천하는 불교가 돼야 합니다.
4. 조계종과 승려는 맑은 구슬과 같아서 투명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서로 비추고 소통하는 열린불교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5. 일체가 평등하고 무차별하다는 불조의 가르침을 새기고 삶에 지치고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종단과 승가가 돼야 합니다.
6. 조고각하(照顧脚下), 늘 자신을 살피는 생활로 다시는 세상에 걱정을 넘어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치고 다듬으며, 다시 발라서 새것으로!



△ 봉정사만세루(鳳停寺 萬歲樓)시도유형문화재 제325호 / 안동시

봉정사 만세루는 무수한 세월 속에 회벽이 떨어져 나가고 이음새가 벌어지는 등 퇴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건축은 새로이 회벽을 바르고 기름칠을 하며 썩거나 부러진 부재는 새것으로 교체해서 늘 새집 같이 단장을 합니다.

그처럼 오래된 고건물을 새롭게 벽을 바르고 썩거나 부러진 곳은 새것으로 교체해서 살려가듯이, 우리 승가도 이음새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렇게 고치고 끊임없이 유신하며 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크기에 더 큰 참회의 토대 위에서 거듭남을 위한 유신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사 등 각 교구본사는 자체의 개혁안을 생산해서 실천해야 한다!

보왕삼매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 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 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 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써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어려움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함으로써 사귀를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되고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 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써 스승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덕을 베풀면서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풀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당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도울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한 것으로써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불교문화 그 위대성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지명의 상당부분은 불교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는 1천7백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해 왔습니다. 유무형의 숭한 문화유산들이 증명하듯 불교는 그 오랜 세월을 민족의 영육과 함께 하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고, 때때로 전통의 불교문화와 민속의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우리 민족의 사고와 의식, 사회 전반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불교는 뿌리 깊은 문화생명체로서, 오늘날 아시아는 물론 서구사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이 매우 큰 종교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로서의 대안입니다. 이른바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큰 빛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양국의 불교 역사와 문화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믿어 나라 이름마저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인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 ‘중화 민족’이 최초로,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 사회가 공산화되기 전까지 - 전 인민적 차원에서 열광하며 맞이한 외래사상은 역사적으로 불교뿐이었습니다.

근래 중국이 만리장성을 고구려와 발해의 옛 영토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는 역사와 오늘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저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공정을 근본에서 저지하는 것은 중국에 큰 가르침과 교훈을 준 한국불교 역대 고승들의 업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념과 사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대안을 불교에서 찾는 세계 석학들의 시각도 한국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치권이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편협한 시각을 탈피하여 일정부분만이라도 불교와 불교문화에서 대안을 찾는 대승적 자세가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천7백년의 불교문화의 저력은 반드시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심성순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교와 그 문화는 특정 종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원이며 재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사의 대 스승들

시 대	고승(일부)
삼국시대	검단 겸익 국행 각진 도응 도감 담화 덕이 도의 무상 보옥 보덕 승랑 신림 의운 의각 아도 원광 의현 의신 영심 자장 지명 혜감 희연 혜충 혜증 행은
통일신라	경보 광덕 도선 대경 도윤 도장 범일 삼강 심지 순응 영조 원효 의상 엄장 의조 진표 자장 정수 진감 천묵 철감
고려시대	경양 각적 각진 능여 나옹 도생 미수 만연 보우 보조 복구 부휴 설정 승형 수기 의천 일연 원진 원참 윤다 지눌 진각 진관 지환 지선 처능 천책 체징 함허 홍진 효정 혜심 혜근 혜조
고려시대	경양 각적 각진 능여 나옹 도생 미수 만연 보우 보조 복구 부휴 설정 승형 수기 의천 일연 원진 원참 윤다 지눌 진각 진관 지환 지선 처능 천책 체징 함허 홍진 효정 혜심 혜근 혜조
조선시대	관허 경문 극심 경눌 각안 낙빈 낙현 낭오 내원 덕우 두천 대인 도오 두운 무주 만공 명례 명암 재징 몽수 벽암 보경 보주 범영 보심 서산 서일 상은 석덕 성체 사명 운암 일오 의경 오환 언기 지조 지은 진덕 정행 진기 청용 청언 천심 채원 최눌 쾌선 태현 태호 태능 태여 품관 파일 표운 평신 학철 해청 해안 해정 혜립
일제강점기 및 근 현대	금오 태전 보응 문성 경봉 고봉 고암 금오 동산 만암 만해 만공 성월 석우 윤경 용산 영암 완규 용성 전강 정련 몽화 정신 청운 청담 추담 춘성 탄허 한암 혜암 혜월 효봉 호은 정연 관응 제산 퇴운 원일 울암 호운 구하 해담 동산 성철 자운



△ 청허당 서산대사영정



△ 국보 제52호 해인사 판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논문의 주제는 불교계의 인물과 사상 등 그 업적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사회, 우리 모두 탐욕을 버리자...

空者一切生死 不空者 謂大涅槃 (공자일체생사 불공자 위대열반)

헛된 것은 지각없는 생활이요

헛되지 않은 것은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 가진 삶이다.

- 元曉 -

(이기영 저 원효사상 1세계관 중)

불교에서 ‘탐욕’이라는 용어는 ‘붉음(赤)’ 또는 ‘연소(燃燒)’를 뜻하는 ‘rāga’를 번역한 말로써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말 합니다. 부처님께서 좋지 않은 의미로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불꽃처럼 타오르는 맹렬한’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며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킵니다!



△ 소욕지족(少慾知足)의 삶을 사는 수행자

(사진출처 : 운문사 홈페이지)

한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개혁해야

청소년범죄와 자살률이 대책 없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범죄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초등학생이 소외감으로, 성적비관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 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Mentor)라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서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근에게 ‘청렴’이란 공직 윤리는 잊혀진 단어에 불과했나 봅니다.

대통령들 중에 당사자가 직접 구속되거나 아들 등 자녀나 친인척이 온갖 범죄로 구속이 되는 것이 어느 사이엔가 자연적인 현상이 돼 버렸습니다.

종교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선행을 권장하고, 현실에서 인간을 선(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이 고매한 신분과 지위, 지식인의 탈을 쓰고 범죄인이 되어 세금을 탈루하고 서민을 억압하는가 하면, 살인과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종교의 순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권력과 이익이라는 사리사욕으로 다툼이 빈번하니, 세상의 사표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사회는 종교계부터 출발해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현실을 진단하고, 대 개혁과 정화라는 처방을 내려 하루빨리 치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의 병든 곳곳을 치유하는 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상실, 권력에 의한 차별현상, 생명경시, 황금만능주의에 의한 온갖 행태의 범죄에 대해 때로는 공격적인 방안을 구사해서라도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1의제입니다.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각자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일에 한국사회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현대를 사는 멋진 스님들

CF출연 화제 혜민스님, 출연료 전액 장학기금으로 기부 “기부는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불교신문〉 데스크승인 2012.04.03 홍다영 기자



“종교인이 상업광고에 나온다는 것에 부담이 컸다. 하지만 좋은 곳에 기부를 하고 많은 이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 광고출연을 결심했다. 기부는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미국 햄프셔대 교수 혜민스님이 최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기금 4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혜민스님은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LG유플러스의 신규 LTE 광고를 촬영했다.

혜민스님은 미국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버드대 재학 중 출가를 결심해 스님이 됐다. 현재 활발한 저서 및 SNS 활동으로, 삶에 지친 이들을 격려하는 그의 응원 메시지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종교와 인종, 가치관을 뛰어넘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글을 전하고 있으며, 현재 12만 팔로워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해 두 달 만에 판매고 20만부를 넘기며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혜민스님은 몇 차례 고민한 끝에 광고 출연을 최종 결정했다. 처음에는 LG유플러스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본인의 광고 출연료와 LG유플러스 기금을 더해 함께 기부하자는 취지에 공감해 광고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번 기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저소득청소년 장학금과 대전 번동에 위치한 도솔노인복지센터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된다.

임찬호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장 상무는 “광고업을 하면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아름다운동행에 처음 기부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지속돼 사회공헌 사업에 함께 앞장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새로운 LTE 광고 ‘혜민스님편’은 지방의 한적한 대나무 숲에서 혜민스님이 LTE 스마트폰으로 HD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U+HDTV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세계 최초 LTE 전국망을 구축한 U+LTE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있다.

“지혜와 자비 갖춘 부처님 제자 되자” 도선사 주지 선묵 스님

〈불교신문〉테스크승인 2012.04.23 안직수 기자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일깨우며, 교리 교육, 국내외 각종 구호활동 등 바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집무실에서 만난 스님.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스님을 아는 사람들은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통해 수행운동을 하는 스님,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스님을 떠올린다. 이는 선묵스님이 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다. 정작 근본은 도선사를 찾는 신도 교육과 수행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지난 3월27일 도선사에서 선묵스님을 만났다. 집무실은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3평도 채 안되는 좁은 공간이었고, 10년 넘게 사용한 소파에서 검소한 스님의 면모가 묻어났다.

충북 충주가 고향인 선묵스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열넷의 나이에 출가를 했다. 가정 형편상 중학교 진학이 어려웠다. “절에 가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출가를 했다. 그리고 은사 청담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열반할 때까지 곁에서 시봉을 했다.

“인신난득 불법난봉(人身難得 佛法難逢)이라,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부처님 제자가 안됐으면 아마 부지런한 농사꾼이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지게로 소금 한가마를 질 정도로 근력이 좋았거든요.”

선목스님은 “베풀 때가 가장 마음이 좋다”고 말한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또 신도들을 볼 때면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108산사순례기도회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처음 결성한 것은 2006년 9월.

“불교는 이제 산중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야한다”며 실천불교를 늘 강조하던 은사 청담스님의 유지에 따라 “백팔번뇌를 소멸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하면서 백팔염주를 신도들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순례기도회를 결성했다. 사실 그동안 사찰마다, 소규모 신도단체마다 정기적인 사찰순례회는 많았다. 주로 한 번에 삼사순례를 하는 방식이었다.

선목스님은 “한 사찰을 가더라도 정성껏 기도하는 신행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한 번에 한 사찰만 들르기로 했다. 절에서 법석도 열고, 108참회 기도도 올리고, 사찰 이름이 적힌 염주를 하나씩 나눠주며 신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순례를 거듭하면서 ‘실천행’도 업그레이드 됐다.

“해인사 순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더덕, 고사리, 도라지를 파는 거예요.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기에 ‘버스 시간이 급하다’고 재촉을 했죠. 버스 안에서 한 신도가 ‘천릿길을 왔다가 집에 가는데 함께 못간 남편을 위해 찬거리를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가를 가봤어야 알지하고 웃어넘겼죠. 그 다음부터는 순례를 갈 때 지역 농협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마련하는데,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 관측사를 방문했다가 초코파이를 두고 서로 먹으려 다투는 장병을 보면서 순례회원들이 매달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 와 인근 부대에 보시하고, 다문화가정과 108인연맺기 운동,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병든 이를 위한 약사여래보시금 전달도 순례회의 빼놓을 수 없는 실천행이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선목스님의 마음이 담긴 순례기도회다.

108산사 순례단 이끌며 실달학원 통해 불자육성 네팔 등 해외구호 실천도

도선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도도량이기도 하다. 특히 입시철이면 수 많은 사람들이 도선사를 찾아 기도를 올린다. 또 삼각산 등반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도선사를 지나다. 이들 누구나 삼시 세끼 ‘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것도 인연이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청담학원 운영,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시설인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양로원, 청담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혜명보육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청락원, 청담어린이집을 비롯

한 10곳의 어린이집 등 도선사가 운영을 책임진 복지단체도 20여 곳에 이른다. 선묵스님은 또 신도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실달학원에서 기초교리반을 운영하면서 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살림을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

“모두 다 신도들이 복짓는 일이고, 인연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님은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하고 있다.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각종 일정을 소화하고,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위한 사전답사, 목.금.토 3일간의 일정을 함께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 선묵스님은 “매일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무탈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108배와 신묘장구대다리니 기도를 올린다”고 말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부처님의 감응이 함께 한다는 굳은 믿음이 선묵스님이 말하는 ‘행복의 시작’이다.

“불자들이 부처님께 가정의 안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신심 있는 불자라면 한발 나아가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베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나도 행복하고 넉넉해지는 이치지요. 이웃이 땅을 사니 나도 덩달아 기쁘고, 이웃이 아프면 나도 함께 아파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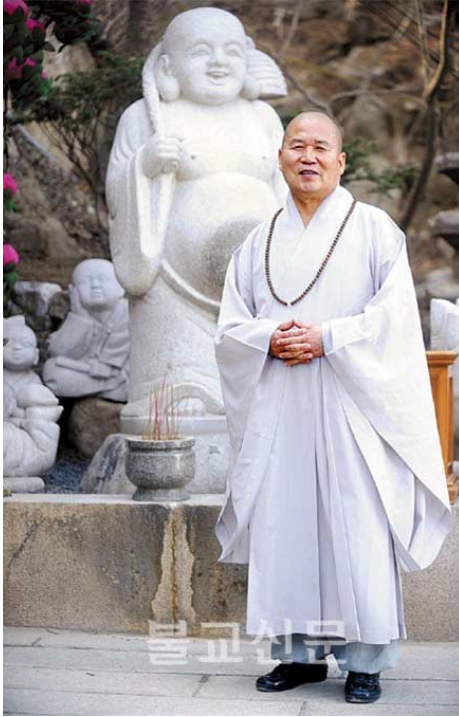
지난 2월 선묵스님은 150여명의 신도들과 네팔 룸비니 성지를 다녀왔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 한국에서 조성한 탄생불을 봉안했다. 탄생불 하단은 아소카 석주를 본뜬 기단을 세우고, 2008년 인도 쿠시나가라(부처님 열반성지)의 스님으로부터 봉양 받아 소중한게 모셨던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봉안했다.

의미있는 행사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문화교류의 성과를 치하했다. 또 람바란야다브 네팔 대통령이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부처님 탄생성지에 탄생을 상징하는 불상이 없어 안타깝던 차에 이번에 봉안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탄생불을 석주 위에 엮자 독수리 20여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탄생불 위를 빙빙 도는 거예요. 동참한 신도들이 환희심이 났죠.”

선묵스님은 또 룸비니 마을 주민을 위해 ‘108선혜학교’를 건립 중에 있다.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3년간 도선사에서 운영한 후 정부에 운영권을 넘겨줄 계획이다. 국경을 넘은 자비행이다.

스님께 불자들을 위한 법문을 청했다. “베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전하고 싶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결국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웃에게 칭찬하고,



잘못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법을 따르며 사된 행동을 하지 않고, 대중의 뜻을 따르면서 화합한다면 내 삶도 행복하고 편안해 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 그 또한 무한한 복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권합니다.”

도선사 입구에는 ‘자비무적(慈悲無敵)’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 자비로운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일도 없다.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제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불자들에게 전하는 선묵혜자스님이다.

■ 선묵혜자스님은...

선묵혜자스님이 처음 산문에 발을 디딘 것은 정화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5년이였다. 당시 14세였다. 2년간의 행자생활 뒤에 1967년 청담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1년 청담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시봉을 했다. 1975년 통도사 강원에서 경학을 연찬하고, 송광사서안거 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1978년 수락산 도안사 주지를 맡아 포교불사를 시작한 스님은 도안사 일을 보는 틈틈이 출가본사격인 도선사 교무국장, 총무국장, 부주지 등 소임을 맡아 사찰 발전에 일조했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노원경찰서 경승, 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불교신문 사장 등을 거쳤다. 2001년 도선사 주지로 취임해 청담기념관 개관,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및 학술세미나, 청담대종사 사리탑 주변 성역화 불사 등을 진행했다. 2010년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불교언론의 한 획을 그을 때는 불교신문사 사장으로 있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 포교대상을 비롯해 총무원장상, 만해대상 등 다수의 수상을 한 바 있으며, 2006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앙코르 왓 유적 복원 동참 등의 공로로 훈장을 받은 데 이어 2008년 네팔 코이알라 수상에게 평화훈장, 2012년 2월 네팔 국회의장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았다.

[불교신문 2811호/ 4월25일자]

“북한, 낙엽 떨어지듯 사람 죽어가…도와야” 법륜 스님, 힐링캠프 두 번째서 “현재에의 만족이 수행”

〈불교닷컴〉2012년 06월 05일 (화) 조현성 기자

즉문즉설 법륜 스님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4일 SBS ‘힐링캠프’ 40회에 출연했다.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녹화된 방송에서 스님은 인도, 필리핀, 북한 등서 구호사업을 펼치게 된 계기 등을 설명했다.

스님이 인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였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걸인이 스님을 이끌고 갔던 곳은 식료품 가게였다. 걸인은 스님에게 아이의 분유를 사달라고 했지만, 스님은 외면했다.

분유 가격은 60루피, 1루피 이상은 적선하지 말라는 가이드의 조언 때문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스님이 60루피를 환상해보니 한화 2400원이었다. 스님은 부끄러웠다. 굶는 아이를 위해 분유 한통을 사달라는 요청을 전재산을 달라는 것마냥 뿌리치고 왔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중생구제를 외쳤는데 실제 상황에 부딪히니 도망쳤다”며 “이 때 깊은 반성 후 가난한 인도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님이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니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통에 여행이 어렵게 될 지경이었다.

어느 시골 마을 이었다.

법륜 스님은 아이들에게 사탕 등 먹을 것을 주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다가오지 않았다. 주머니서 사탕을 꺼내 주려고 다가가니 아이들이 도망을 갔다.

스님은 “다가와 손 벌리는 도시 아이들과 달리 도망치는 시골아이들을 보고 나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도시 아이들보다 더 가난했지만 먼저 손 벌리지 않는 시골 아이들. 스님은 그 모습에서 자신이 구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후 스님은 인도순례 기간 만나는 아이들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사탕 하나 때문에 아이들을 거지 만들겠다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다 두발을 못쓰는 아이를 만났다. 두팔로 기며 쫓아와 도와달라고 청하기를 1km. 스님은 그 아이를 보고 또 다시 고민했다. “과연 안 돕는 것이 맞는 것인가.”



△ 지난달 28일 법륜 스님이 힐링캠프 첫 출연했을 때의 한 장면.

법륜 스님은 결론을 얻었다. “먹을 것 등을 주긴 줘야한다. 그렇지만 거지가 되지 않게 줘야 한다.”

스님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돕자는 구호의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 학교였다. 스님은 인도 불가촉천민 지역에 학교를 지었다. 학교를 지을 때 자재 등은 스님이 부담했지만, 땅과 노동력은 천민들로부터 제공 받았다.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조레 후면 아이들이 쓰러졌다. 영양실조 때문이었다. 스님은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등의 도움으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식사를 제공하니 학생이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로 시작한 인도에서의 구호활동은 유치원, 중학교 등으로 이어졌다. 스님은 “인도에서만 16개 유치원에 1800명이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도에 이어 필리핀 분쟁지역에도 학교를 세웠다. 반군지역은 위험해 교사를 파견할 수 없자 스님은 반군지도자를 만나 학교 봉사자의 신변안전 담판 짓기도 했다.

스님은 이 같은 활동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2002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스님이 1995년 중국을 갔을 때였다. 한 현지인은 스님에게 “북한에 식량 없어 사람이 굶어죽는다. 그 아이들을 내버려두면 남북간 인종이 달라질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믿지 않았다. 그 현지인은 스님을 압록강으로 데려갔다. 스님은 그곳에서 한 아이를 목격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먹지 못해 깡마른 채로 있던 그 모습은 인도 구걸하는 아이와 똑 같았다. 스님이 불렀지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현지인은 “조선(북한) 아이들은 구걸할 자유도 없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생각했다. “이쪽에는 음식이 많고 살 돈도 있는데, 왜 저 아이에게 줄 수 없는가. 국경과 국가가 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스님은 “통일해야한다고 막연히 생각해 왔지만 분단이 가슴에 절절히 다가온 것 그때가 처음 이었다”고 회고했다.

법륜 스님은 “1995년 대홍수 이후 3년간 300만명이 북한에서 굶어죽었다. 그 엄청난 수에 국제사회도 믿지 않았지만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무수히 사람이 죽어갔다”고 말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스님에게 한국사회는 매정했다.

보수 세력은 스님이 주적인 북한을 돕는다고 공격했다. 진보 세력은 스님이 나쁜 의도를 갖고 북한의 좋지 않은 면만 부각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스님은 꾀꾀하게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스님은 “남한만으로는 경제 성장 한계에 도달해 있다. 통일은 북한 개발이라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과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 준다. 통일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평양도 가고 중국도 갈 수 있다. 분단돼 섬처럼 갇힌 지금과는 젊은이들 기상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법륜 스님은 박근혜 새누리당 前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설도 해명했다.

스님은 “모성애는 생명의 원리이다. 아이를 낳으면 3년까지는 엄마가 온몸으로 아이를 돌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前 위원장 관련 내용은 한 아이엄마와의 즉문즉설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님은 저서 <엄마수업> 출간하고 독자들과 즉문즉설을 했을 때, 한 직장여성에게 질문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고 묻는 내용이었다.

스님은 이 여성에게 “엄마는 자식을 끔찍이 키워야 한다. 닭도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알을 품는 것이 생명의 원리다.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판사·검사·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튿날 언론은 법륜 스님이 “여자는 자고로 애를 낳고 키워야 한다”면서 박 前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나중에는 내가 ‘박근혜 씨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으니 대통령될 자격도 없다’고 말한게 됐다”로 설명했다.

법륜 스님은 “종교는 사람을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며 “현재 지금 여기서 자유롭고 행복하면 그것이 내세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만족을 못하고 남을 부러워한다.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부럽고, 중학생은 대학생이 부러운 것처럼 현재에 만족 못하고 부러워만 한다. 그러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한다.

스님은 “왜 당시에는 힘들다면서 지나면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가. 수행이란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행복은 기분 좋음, 불행은 기분 나쁨이라고 정의했다. 스님은 “기분 좋고 나쁨에 민감하면 행복과 불행이 되풀이 된다”며 “진정 행복하려면 기분 좋음과 나쁨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승려란?
구세대비의 실천자

승풍의 혁신으로
구세대비의 실천자가 되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포교합시다” [봉축특집] 행복을 나누는 현장-전법단 5인방



포교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스님들 얼굴에는 고단함보다 웃음이 배어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병원, 교도소, 군대, 경찰서, 대학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는 스님들이 있어 불교는 오랜 세월 전해질 수 있었다. 자랑스러운 조계종 전법단 성민스님(교정교화), 본공스님(교정교화 경찰 대학생), 해성스님(장애인), 지현스님(병원), 철영스님(경찰)을 소개한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지현스님 / 병원전법단, 쌍문노인복지센터 관장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안과 행복”

지난 3일 흑석동 중앙대병원 엘리베이터 안. 짧은 머리카락의 앳된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주저앉아 있다. “얼굴이 참 예쁘다”며 말을 건넨 지현스님이 소녀의 안부를 묻는다. 뇌수술 후 검사받기 위해 입원을 했다는 소녀는 “예쁘다”는 칭찬이 싫지 않은 눈치다.

검사실로 향하는 소녀를 스님이 꼭 안아주자, 지켜보던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헤어지기 전 스님은 “곧 건강해질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쉬고 싶을 때 법당으로 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단주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자란 생각에 말을 건넸다”는 스님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법문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포교활동을 한지 올해로 16년째라는 지현스님. 1997년 고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며 호스피스활동을 한 게 계기가 됐다. 그러다 2004년 중앙대 법당을 시작으로, 2005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2006년 고려대 구로병원, 2007년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에 법당을 차례로 개원했다. 요즘엔 월요일은 안암동 고려대병원엘, 목요일은 흑석동 중앙대병원 법당에 나간다.

스님은 환자들을 만나면 법당에 오라고 권하지만, 무작정 붙들고 법문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말도 “안녕하냐”는 인사도 안한다. “아파서 짜증나고 신경질난 사람한테 ‘기도하면 낫는다’거나 ‘전생에 업이 많았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며 “그런 말은 ‘기독교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환자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스님이 택한 방법이다.

지현스님의 기다림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희망이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한다. 병원법당 봉사자들 중에는 스님과 인연으로 새 삶을 시작한 이들이 있다. 연명순(56, 법왕심)씨가 대표적이다. 4년 전 환자로 입원했을 때 스님을 만난 게 인연이 돼, 퇴원한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병원법당에서 봉사한다.

그는 4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약물부작용으로 철도사고를 당해 두 다리와 오른쪽 손을 잃었다. 잇따른 시련을 겪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염없이 울고 원망하는 것 뿐이었다. 실의에 빠졌을 때 위안을 준 게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이었다.



지난 3일 흑석동 중앙대 병원법당에서 열린 목요일 법회에 참석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들의 표정이 밝다.

지현스님은 그에게 퇴원 후에도 외래를 다니며 법당법회에 나올 것을 권했다. 그렇게 신행활동을 하면서 미움도 원망도 내려놨다. 얼굴에 웃음과 생기를 되찾았고, 누가 물어도 거리낌없이 얘기해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였다.

의족과 의수를 착용했지만, 가만히 있기보다 할 수 있는 만큼 활동하려고 한다. 집안 살림도 하고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지금은 법당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차도

내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준다. “장애는 있지만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산다”며 “병원법당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고맙다”는 게 그녀의 심정이다. 역경을 딛고 그녀는 스스로 누군가의 희망이 됐다.

또 다른 봉사자 전상삼(70, 법광)씨는 현재 조계종 포교사단 감사다. 지난 2006년 결핵성뇌수막염 투병 중인 아내를 1년반 동안 간병하며 대소변까지 받아냈다. “아내가 병석에 누운 뒤 포교사로 부처님법 전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참회했다”는 그는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며 아침저녁 법당에서 기도를 했다.

아침저녁 한 시간씩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부처님 전에 올렸던 청정수로 아내의 약을 먹이고 돌봤다. 그의 정성 때문인지, 수술조차 만류했던 의사의 진단과 달리 아내의 병세는 호전됐다.

“전에는 24시간 집에서 돌봐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해졌다”며 “덕분에 봉사활동도 다닐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는 지현스님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그는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믿고 기다리고 도와주는 환자와 가족들, 봉사자가 있어 지현스님은 기운이 난다. 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다보니 장기 환자가 없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3개월이면 퇴원할 환자들 이지만 스님은 항상 진심으로 대한다.

가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간혹 재입원한 환자들이 “기다렸다”며 반가워할 때가 있다. 스님은 “나를 기다려주는 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초발심을 내게 된다고 한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는 병원이란 공간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뛰어다닐 것”이라고 서원을 세웠다.

■ 성민스님 / 경찰·교정교화전법단, 백락사 주지 부처님 마음 갖는 순간...교도소가 곧 불국토

홍천 백락사 주지 성민스님은 ‘환경설치미술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지난 2005년부터 외딴 산사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음악도 즐기는 ‘환경설치미술전’을 개최하면서 홍천사 대표 행사로 키웠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경찰서에서도 꾸준히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이자 춘천교도소 교정교화분과위원장으로 12년 째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둘 다 포교원에 소임을

말으면서 인연이 닿았다.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이자,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도소 포교는 할수록 어려운 곳이다. 간혹 스님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도와줘가며 포교를 해야 하나”고 묻는 사람이 있다. 스님은 그러나 수인의 몸이 된 수용자들 역시 한편으로는 손 내밀어야 할 어려운 이웃이라고 봤다.

“물론 세상에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더 많지만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죄를 짓고 큰소리 치기도 한다”며 “이들은 감옥에도 가지 않고 평평거리며 사는 반면 없는 사람은 한순간 잘못으로 잉여의 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스님이 자비를 실천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면교사가 돼 주기도 한다.

스님은 또 이례적으로 교도소에서 천도재를 봉행하기도 했다. “어느 해인가 교도소 내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교정교화전법단장 현강스님의 제안으로 함께 천도재를 지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 때부터 매년 수용자와 수용자 조상들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왔다.

“세상 어느 곳에 사람이 죽지 않는 곳이 없듯이 교도소도 마찬가지”라는 스님은 “교도소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조상을 천도하고 싶어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재를 올린다고 말했다.

“부처님처럼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교도소가 법당이요 불국토요 부처님이 된다는 생각으로 수용자들을 만나 포교하고 있다”며 “불자들도 자기 자리가 가장 고맙고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어 고맙다고 기도한다면 달라진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개최한 장애인과 가족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모습.

■ 해성스님 / 장애인전법단,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복지법인 연화원 설립...장애인에게 일터 제공

1993년 통합장애인법회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포교에 발을 들였다.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1980년대 후반, 스님은 복지가 대체 뭐가 싶어 여러 곳에 다니며 공부를 했었다. 가는 곳마다 타종교들의 활동을 보며 부러워하던 차에 개신교 수화공연이 눈에 들어왔다.

스님들로 이뤄진 수화공연단을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에 수화를 배우러 갔다. 그곳에서 청각장애인을 만났다. 부처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지만 배울 곳이 없던 그들을 위해 법회를 열었다.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도 아닌 불교가 무슨 포교를 하고 법회를 하나”며 시큰둥했다고 한다. 스님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불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특수학교는 한 곳도 없는 반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나.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 스님이나 부처님,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첫 법회가 열리는 날 참석한 이들이 “불교는 왜 장애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그 때 스님은 총명하지 않지만 깨달음을 얻은 ‘주리반특가’와 잠도 안 자고 수행하다 실명한 아나올 존자를 예로 설명했다.

“요새 말로 하면 주리반특가는 정신지체고 아나올 존자는 시각장애인”이라며 “부처님께서 장애인도 수행해서 깨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분”이라는 스님의 설명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법회에 나오게 됐다. 지금은 스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만 없지 열심히 포교하며 다닌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들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스님은 2003년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을 설립해 지적,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원을 운영하고 있다. 압화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님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수행자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해주는 장애인불자들에게 항상 고맙다”며 “우리는 서로가 곁에 있어 행복한 사람들”이라며 웃었다.

“월이 있다면 문화복지 회관을 건립해 장애인과 그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스님은 “중단 차원에서도 장애인불자들이 사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휠체어용 길을 만들어주는 등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본공스님 / 경찰 · 교정교화 · 대학생전법단 신발 닦도록 전법...한 달 23회 법회

문어발식 포교의 대표주자다. 서울 불광사 법등모임을 연간 1100여회 주관하는 동시에 한양대 불교학생회, 송파구청불자회 성동구치소,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지도법사로 활약 중이다.

한달에 23번 법회에 참석하고 11번 회의를 한다. 어느 날에는 5번의 회의와 법회를 소화하기도 한다. “지도법사 스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단체들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닌다.

사실 스님은 타고난 포교사는 아니다. “원래 말을 좀 더듬는데다가 대인기피증이 있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 건네는 걸 어려워했다”고 한다. 군법사가 되면서 조금씩 변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주말이면 어김없이 법회를 열고 법문을 해야 했다.

스님은 “16개 법당을 맡았는데 주말이면 7~8곳을 돌아야 했다”며 “한군데라도 더 가서 병사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짜며 찾아다닌 덕에 많이 변했다”고 회상했다. 그때 쌓은 노하우는 지금까지 발휘되고 있다.

힘들고 막막할 때도 있었다. 군법사 시절 자살 충동을 느끼는 22명의 관심사병을 상담했는데, 그 중 몇몇은 목숨을 끊었다. 실낱같은 희망도 없어 죽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스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된 수용자도 있다. 지난해 스님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10년간 봉양하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수한 수용자를 만났다. 50대 미혼에 학원 강사였던 그 남성은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자살만 생각하며 지냈다.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는 얘기를 들은 스님은 이웃에게 진정서를 내줄 것을 부탁하고, 교도소에서 공부하려는 수용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스님의 노력 덕분에 그 남성은 5년 형을 받고 지금 복무 중이다.

본공스님은 “포교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간사해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제 자신에게 공부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교현장에서 절감하는 것은 불교포교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전국사찰 신도조직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싶다”고 말했다.

■ 철영스님 / 경찰 · 교정교화전법단, 세존사 주지 “무주상 법보시로 희망 나눠요”

서울 세존사 주지 철영스님은 앓던 얼굴과 달리 경찰과 교정교화분야 전법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드물게 송파경찰서 경승실장이기도 하다. 송파경찰서는 전국 단일 경찰서 중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800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경찰서에서 포교활동을 해온 스님은 송파경찰서 불자들을 위해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 격주로 법회를 연다. 둘째 넷째 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에서 법문을 하고, 셋째 주에는 성동구치소 여사법회를 주관한다. 한달에 4~5번 경찰서와 기동단, 구치소를 오가며, 주말에는 어린이법회를 지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기동단이나 구치소 법회 운영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고 지원해주는 재가불자들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누가 등을 떠밀어 시작한 일이 아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스님이다.

설 틈 없는 일정이지만, 기다리는 불자들을 생각하면 게으름은 언감생심이다. 무주상으로 법보시를 실천하는 철영스님 덕에 불자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구치소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막상 법문을 시작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집중한다”고 한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질문을 하고 배운대로 실천하려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도 느낀다.

송파경찰서 불자들과의 만남도 즐겁다. 아버지 연배의 불자들이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 가르침 한 마디 한 마디를 새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법회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예전에 혜거스님이 ‘공부라는 건 배우면서 반을 익히고 가르치면서 반을 익힌다’ 고 했는데 해보니 정말 그렇다”며 “법회 참석하기 전에 법문을 준비하면서 내 공부가 되고 듣는 사람도 함께 공부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포교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시간을 쪼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포교하자”며 환하게 웃었다.

[불교신문 2820호/ 5월26일자]

영원한 스승이시여!



△ 성철 스님(출처 : sungchol.org)

山是山 水是水

영원한 수행자의 표상! 스님의 사자후는 수행자는 물론 온 나라를 두드렸습니다.



△ 법정 스님(출처 : 법정 넷)

無所有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 국민의 가슴에 영원할 것입니다!

총무원장스님 소록도 방문



△ 지난해 5월 3일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병 환우의 손을 잡고 격려하는 총무원장 지승 스님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1등 공신 혜문 스님



△ 혜문 스님



사진출처 : 불교닷컴

2011. 12. 31. 혜문스님, 보신각 타종행사에 시민대표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혜문스님에 대해 “모든 국민의 염원과 정성을 모아 조선왕실도서 1200책이 백년만에 돌아오는 감격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최초 국수공장 설립한 법타 스님



1997년 불교계 최초로 북한 황해도 사리원시에 금강국수공장을 세우고 평화통일운동을 벌여온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스님)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평북협은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평화통일을 위한 원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서원했다. 2011년 10월 정부로부터 은관문화 훈장도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출처:불교닷컴)

백팔산사 순례로 농촌사랑의 새로운 장을 연 선묵 혜자 스님



2012년 5월 17일 선묵 혜자 스님(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주지)이 농촌사랑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는 우리의 지친 심신을 치유합니다



△ 템플스테이에 참가중인 중학생들



△ 금년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앞 길에서 외국인 등 만들기 대회가 열렸다.

참회문

[총무원장 스님 참회문]

국민과 불자 여러분께 참회드립니다.

세간의 욕망에 더욱 초연하여 인천의 스승이 되어야 할 수행자들이 최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불교를 아끼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심려와 허탈감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참회드립니다.

더불어 종단의 책임자로서 자비와 화합의 승가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오지 못한 것에 대해 부처님 전에 엎드려 참회합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수행자답지 못한 이번 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종법·령에 따라 조속히 엄중 처벌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중생의 삶의 현장에서 보살행을 통해 평화와 행복의 연꽃을 피워 나가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올곧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소외 받는 이들의 곁에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승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무원장으로서 지난날의 과오와 안일함에 대해 자성하며 종단 전체가 참회하고 자숙하는 모습으로 정진해 가겠습니다.

총무원장인 저부터 108 참회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 불자들께서 종단이 자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불기2556(2012)년 5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참회문]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과 종단 안정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결의

우리는 최근 일부 승려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승가공동체의 정신을 올곧게 받들지 못한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데 책임을 통감하며, 공업중생(共業衆生)의 정신으로 현재 종단이 처한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중정예하께서 밝히신 참회의 뜻과 총무원장스님이 발표한 참회문에 담긴 뜻을 이어 받아, 모든 대중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방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종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승려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경우 종단의 미래를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의 정신으로 일벌백계하여 향후 세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부대중 공의를 통해 종단의 근본적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자성과 쇄신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계율과 중현중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폭로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사된 행위를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파사현정의 자세로 엄중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과 종단안정을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정진으로 청정한 승가, 신뢰받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 하겠습니다.

불기2556(2012)년 5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일동

[중앙총회 참회문]

금일 발로참회합니다

금일 중앙총회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과 사부대중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귀감이 되고 인천의 스승이 되기 위한 굳건한 서원을 저버렸습니다. 한국불교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종단의 바른 이정표를 세워야 할 우리 동료의원이 세속에서도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참회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개들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셨던 방일과 방종에 스스로를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숨김없이 드러내 참회하고, 국민들과 묵묵히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종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사태를 맞이하여 자장율사와 진표율사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서릿발 같은 계율이 종헌 중법에 현현할 수 있도록 종단의 입법기관인 중앙총회는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승가의 청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개선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관련된 스님들을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스스로 각고의 참회를 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의혹과 허물을 승가의 청규와 종단내의 사정기관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불교가 방종할 때 보조국사께서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는 기치를 높이 세우고 혼돈의 불교를 결사의 불교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중앙총회는 불조의 뜻을 받들어 이 참담함 속에서 다시 한 번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굳건히 수행해 나갈 것을 삼보님과 국민 앞에 맹서합니다.

저희 중앙총회는 국민 앞에 발로참회(發露懺悔)합니다.

불기2556(2012)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보선

처절하게 성찰하고 파사현정의 혁신을 단행하라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한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위하여 출가자가 서로를 비방하고, 일부 스님들은 승가와 종단을 뒤흔드는 추태를 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특정 의도에 맞게 이를 보도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공세에 불교계와 종단이 공황상황에 있음에도 종단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불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상당수 스님들이 권력욕이나 세속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계율을 어기는 행위를 해왔음을 인정하며 이를 깊이 참회한다. 대다수 스님들은 범인이 다다르기 어려운 경지의 신심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세속의 모든 욕망을 멀리 한 채 수행하고 보살행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스님들이 계율을 어기는 비행을 다반사로 한 것은 사실이며, 일반 사회의 윤리와 통념으로 보아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종단의 수장을 비롯하여 보임자, 종회의원, 본사 주지 중에서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종단의 대처 방안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음을 질책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치열한 성찰,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이 거론된 몇몇 스님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스님들의 파계가 개인적인 수행력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되기에 언제고 또 다시 반복되어 스님들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결국 종단과 한국불교를 몰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과 절도 사회속의 한 기구이기에 권력의 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스님도 자본주의 체제 속의 한 구성원이기에 이 시대의 물화(物化, reification)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수행자라면 권력욕과 물욕, 성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승화가 필요하다. 현대국가 안에서 종단과 절이 정권과 어떻게 긴장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종단과 절, 스님들의 관계 사이에 작용하는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스님들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면서 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게 하는지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이에 맞게 제도 개혁과 계율의 현대화를 해야 한다.

현재의 종단 구조와 사찰 운영 방식은 이번에 드러난 여러 불미스러운 모습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종단 문화 속에서 사회에서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금권 선거와 공금횡령이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추구해야 할 수행자들 사이에서 별 죄책감 없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모든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재정의 운영은 재가불자에게 맡기고 출가 수행자는 수행과 중생의 구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은 과감하게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회에서 자신의 권력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개혁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을 선 종회 의원들은 사퇴하여야 한다.

그동안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나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실천되지 않은 것은 사람의 문제이다. ‘사유재산의 종단귀속’을 성문화하여 귀속된 사유재산을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교육기금으로 사용하지는 합의도 있었고, 사찰의 재정을 중앙 종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자는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큰스님들’이 실천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중법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 중앙종회에 예·결산 내용을 보고한 절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철저한 성찰과 단호한 파사 없이 현정은 없다. 큰스님과 본사 주지, 종단의 보임자, 종회의원들은 모든 사유재산을 종단에 헌납하고 이와 같은 개혁책을 따를 것을 대중 앞에 천명하고, 재산 공개와 헌납을 피하는 스님들이나 사찰을 공개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여법하지 못한 스님과 사찰을 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지만, 성찰과 쇄신이 없이 위기는 기회로 바뀌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스님들의 모든 비리를 공개하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모든 샅된 것을 존속시키는 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

우리 모두 중생의 고통을 외면한 채 욕망 속에 물신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한 것을 참회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 온 ‘불교공동체’의 조직운영 원리를 21세기 사회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여 진정으로 청정한 승단을 세우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간곡히 발원한다. 이제 우리 4부대중이 주인이 되어 정법을 구현하고 청정 승가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단에 대한 시주 거부운동, 승가에 대한 불경배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종단은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출가 수행자들이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2. 종단은 4부대중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단의 수장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공개한 후 관련자는 죄질에 따라 일벌백계하라.
3. 종단은 재정과 권력을 분리시켜, 사찰 재정은 재가불자 중 전문가가 담당하고 스님은 수행과 보살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4. 모든 본사 사찰은 홈페이지에 사찰 재정을 즉각 공개하라.
5. 총회에서 자신의 권력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개혁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선 총회의원들은 사퇴하고 종단 일에 관여하지 말라.
6. 도박, 횡령, 성매매 등 파계와 비리를 범한 스님들은 삼보전에 깊이 참회하고 부정하게 수수된 금품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며, 징계에 응하여 보다 수행에 전념하라.
7. 언론은 선정 및 과장 확대 보도를 지양하고, 객관성과 사실에 입각하되 공정하게 보도하라.
8. 정한용(성호스님)과 이를 사주하는 세력들은 일부 스님들에 대한 비리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지니고 여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전체 불교공동체를 파괴하는 형태의 폭로전을 즉각 중지하라.

불기2556(2012)년 5월 18일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우희중, 이은봉, 최연)

[중앙신도회 입장 발표문]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번 일련의 승풍실추 사건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중 일동은 아래와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아 래

- 종단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종헌 종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
- 승풍을 훼손하는 계파 모임 등 사조직을 즉시 해체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해종행위자를 종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라.

- 사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 종무원들이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게 하고 스님들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시행하라.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들이 불교를 폄하 내지 무자비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며 이천만 불자는 이를 지켜볼 것이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삼보를 받들지 못한 죄를 깊이 참회하며, 사부대중은 종단의 사태처리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불기 2556(2012)년 5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중 일동

[전국비구니회 성명서]

종단의 자성과 쇄신, 전폭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승려의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금번의 사태로 1,600년 한국불교는 누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정수행을 표방하고 있는 출가 사문이, 종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그것도 산중의 어른스님의 49재를 앞두고 벌어진 행태였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축의 분위기가 고조되어야 할 시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온 국민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온 국민에게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고, 크나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를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사태로 늦게나마 전국비구니회 일동은 사부대중에게 크게 발로참회를 표하옵니다.

우리는 초유의 사건으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공식적인 말을 꺼낸다는 것이 오히려 종단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일을 결코 좌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큰 우려 속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종단 안팎의 일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종단 집행부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주축으로 빠른 참회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

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로회 회의를 비롯하여 쇄신위원회의 구성과 나아가 중앙종회가 쇄신을 위한 논의와 결의까지 다지고 있으니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청정 승가를 유지하기 위한 재발방지의 제도적 장치와 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서 2010년 10월 말 종단에서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성과 쇄신은 뼈를 깎는 고통과 실천 정진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부터 차제로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자성과 쇄신이 구두선(口頭禪)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참으로 부처님 제자답게, 출가 수행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큰 경책으로 삼아 철저히 자성하고 쇄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정 승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비승가적이고 비승가공동체적인 요소들이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하고 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로 말미암아 종단에서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고, 종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입법화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들을 우리들은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말로 구두선이 아닌 환골탈퇴하는 각오로, 그동안 비승가적이고 비승가공동체적인 요소들이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하고 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전국비구니회는 적극 협력할 것이며 솔선수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일동

“승가는 참회하고 자중하며 또 쇠신하라”
-뼈를 깎는 참회와 쇠신, 단호한 처벌과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어, 조계사네. 우리 내려서 포커나 한 판 치고 갈까?”

5월 15일, 조계사를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두 젊은이가 주고받은 말이다. 불기 2556년 한국 불교의 부끄러운 얼굴을 들추는 비아냥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덧 한국사회에서 스님과 사찰, 나아가 불교까지도 성스러움을 잃어 버렸다. 스님과 사찰은 우리들의 귀의처이기는커녕 더럽고 추잡한 집단, 추잡한 장소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조계종의 몇몇 승려들이 백양사 방장 수산스님의 49재에 참석하여 밤샘 도박을 벌인 것과 관련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도박으로 시작된 불쌍사나운 일부 지도급 스님들의 파계행은 해외원정 도박과 매음(買淫), 은처(隱妻)에 대한 의혹 등의 폭로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무지 그 끝이 어딜까 두렵기만 하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우리들은 차마 부처님을 대하기가 송구할 뿐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을 것이며 무슨 낮으로 봉축을 읊조릴 것이고, 또 부처님을 대할 것인가.

도박을 한 타락한 승려들만이 아닌, 전체 승가와 불교계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판에 우리 불자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실제로 재가불자들 중에는 애써 불자임을 숨기는 경향이 늘어났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누가, 왜 이 자랑스러운 불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불자로 살아가는 것을 구차하게 만드는가?

일반인들보다, 재가불자들 보다 더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할 스님들이 취한, 있을 수 없는 행태에 대해 조계종은 구종 차원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타락한 승려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할 것은 물론이고, 이런 분위기를 방조한 종단 수뇌부까지도 책임을 지고 쇠신되어야 마땅하다. 발등의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일회성 조치로 적당히 넘길 생각을 가졌다면 이는 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승려들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매음을 한다면 이는 스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5계를 스스로 범(犯)하는 행위이다. 술(酒)과 매음(淫)은 당연히 범계(犯戒)에 해당하거나, 이번 사태로 우리 재가불자들이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신도들의 인격을 죽인(殺) 행위이고,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를 위해 시주한 돈으로 도박을

했으니 이는 시주의 돈을 훔친(盜) 행위이며, 그런 승려들이 지금까지 입으로는 부처님 말씀을 설해 왔으니 이는 거짓말(妄)한 행위이다.

우리는 대학생 시절부터 불자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으로서, 조계종의 승가와 종단 지도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첫째,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도박을 한 승려들은 물론, 그 동안 도박과 술과 매음을 일삼아 온 승려들이 있다면 철저히 색출하여 엄격하게 단죄하라. 어떤 이유로도 이들은 일체의 동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자들이다. 일부에서는 “그 동안의 관례...” 운운하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하나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둘째, 작금과 같은 승려들의 타락행위가 만연하게 된 것은 종단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조계종의 종정 예하와 원로회의 위원 스님들은 큰 위기에 봉착한 종단을 구하기 위한 혁명 차원의 종단 쇄신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신망을 갖춘 출가자와 재가자가 공히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게 하라.

- 셋째, 자숙하고 참회해야 할 종단 지도부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승려들을 회유하거나 압박을 가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 이 같은 비불교적 행태는 즉시 중단하라. 조계종 총무원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일체의 의혹들에 대해 분명하라. 당당하다면 그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을 말끔하게 종식시키라.

종단 지도부가 끝내 이번 사태를 미봉책으로 넘기려 할 때에는 우리 대불련 총동문회의 모든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 코삼비에서 분열하는 승가에 대해 시주를 거부했던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병들고 비틀린 승가를 바로잡는 대열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거듭 조계종 승가의 진정한 참회와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한다.

2012. 5. 15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회원 일동 합장

불교는 희망이며 스님들은 등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사회적 병고액난의 원인을 진단해서 치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교가 사회적으로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 사회에 불이(不二)사상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신과 같이 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불행의 한 원인으로써 탈법과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것은 사회 저변에 너와 나를 차별하고 분별하는 벽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분별이 판치는 세상을 각성시켜 불교의 평등성과 평등상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인식변화의 불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불이사상의 사회화’ 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빈부의 격차와 실업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배고픈(가난과 기아)병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1천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벌어서 사회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면 빈곤과 소외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불교는 가진 자들을 향해 불교의 가치인 소욕지족과 무집착에 대한 가르침을 줘서 그들의 부를 국민과 사회를 위해 회향토록 해야 합니다. 사회와 기업에 불교적 가치에 의한 새로운 개념의 경제관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깨는 주요 요인이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부패입니다. 권력과 직위를 이용한 탈법과 권력남용 그리고 뇌물수수가 대표적 사례인데, 그러한 부정부패를 일소치 못한다면 국민은 차별당하고 불행해집니다. 불교계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비롯한 공직사회에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넷째, 인성파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초등학생들마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일진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약자를 괴롭힙니다. 부모형제간의 신분이 범인과 피해자로 변환되는 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고립과 반목이 유행인 한국사회를 향해 불교가 이에 대한 대책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자연환경 파괴를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와 같이 국토의 환경파괴는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4대강 보에 누수

가 생기고, 해안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항공사진으로 본 한반도는 골프장 천지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면서 보는 풍경은 어지럽고 쓰레기가 넘칩니다. 환경문제, 불교계의 일입니다.

여섯째, 사회지도층과 비리고발 그룹이 청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 교육, 문화계를 이끄는 지도층과 언론 및 시민단체 등 사회감시체계 자체가 청정하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 원칙과 기준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계부터 유위(有爲)적 가치의 추구를 척결해서 사회의 등불이 돼야 합니다.

일곱째, 보편타당한 가치가 안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들, 곧 인권, 환경, 복지, 평화, 빈곤퇴치 등을 위해서 사회 각 계층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계종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홍보할 때 가능합니다.

여덟째, 사회에 정의의 가치를 높여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외면하는 풍토,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자를 비아냥 거리는 풍토에서 국민은 결코 행복할 수도, 평화로울 수도 없습니다.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그 한탕을 위해 범죄도 불사합니다. 이 모두 불교계가 제도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홉째,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는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인 태생, 난생, 습생, 화생과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모두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리라는 선언을 하는 종교입니다. 금수어벌 곤충(禽獸魚鱉昆蟲)등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상의 모든 일을 불교계가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며, 그래야만 합니다. 사회에 무소유(無所有)와 하심(下心)의 철학이 퍼져나갈 때 우리 사회는 희망과 용기가 샘솟게 됩니다.

